

영암 F1 성과와 과제

■ 2년 연속 성공개최 의미

1년새 관심 폭증, 후원기업도 속속 등장

270억 수입 적자 폭 줄이고 영암·전남·코리아 브랜드 높여

16일 오후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이 펼쳐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 내 메인그랜드스탠드(1만6116석) 관람석 90%가 채워졌다.

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향후 코리아 그랑프리의 '흥행 모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번 대회기간 벌어들인 수입은 티켓 판매 180억원, 스폰서 수익 등 90

억원을 포함해 약 270억원. 지난해 대회 통해 들어온 수입 16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전남'과 '영암', 나아가 '코리아'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첫 대회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중소도시에서도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올해 대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200여개국 6억 명의 시청자에게 전남과 영암에 대한 브랜드를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은 "국내 어디에서도 이처럼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대회는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패배의식을 깨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잠재력을 확인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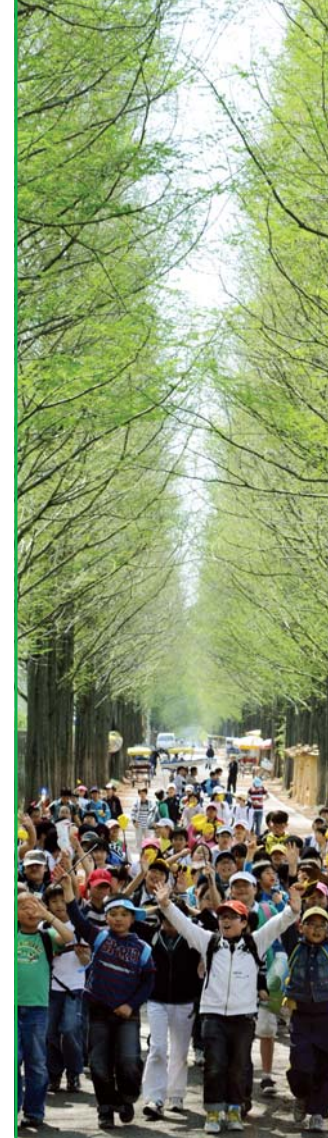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16일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을 찾은 관람객들이 메인그랜드스탠드 입구에 마련된 상점에 F1 레이싱팀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몰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함께 걷자, 가을속으로

이번 주말 담양서 수목길 걷기대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관방제림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수목길 걷기대회 코스로 담양군이 마련한 '담양 오방길'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가로수길이 된 메타세쿼이아길, 담양천과 관방제림을 함께 걸으며 건강과 추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2일(토) 낮 1시
담양읍 추성경기장 집결

코스

담양 오방길 1코스(추성경기장 야외무대~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금일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총 5km구간)

주요행사

죽소요리 시식회,
오방체험(차 비누 한과 및 천연염색)
행운상 추첨(100명)

*참가자(선착순 1000명)에게 간식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담양군
주관: 광주일보사 문의: 062-220-0541

박준영 지사 "내년 F1도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7일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 내년 F1대회도 정상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폐막한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련, "F1 대회는 한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자동차연맹(FIA)에서 4월에 하자는 것을 10월로 확정했다. 국제적인 신뢰와 약속도 있다"며 지속적인

개최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지역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직접 치른 국제 행사였는데 지역민과 관람객, 기업, 경찰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잘 치렀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대회를 지속적으로 치르기 위한 과제로는 개최권료 해결 및 입장권 판매와 스폰서 확보 등을 꼽았다. 박 지사는 "한번 치르는데 500억원에 육박하는 개최권료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양과동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하라" 광주시, 남구청에 통보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고 남구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갖고 "남구청의 건축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이 시설은 위법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폐기물 관리법상 1일 처리 능력이 10t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된다"며 "기반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엔 반드시 주민의견 등을 청취한 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을 구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남구청이 이 시설을 건축면적 1500㎡

미만인 일반건축물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 시설과 관련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적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이 90%가량 진행된 상태인데다 100억 원의 막대한 건축비가 투입된 만큼 해당 시설 사업주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37회 광주 사범·사대·교육대 총동문체육대회
· 일시: 2011. 10. 23(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주최: 광주 사범·사대·교육대 총동문회
· 주관: 광주교육대 28회 동창회
· 연락처: 062-520-4038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경선

'명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꿈꾸며... 여러분을 열띤 토론의 장으로 모십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4시간 열띤 토론

2011년 10월 26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영암 현대호텔

기조연설
- 제1주제: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 베르너 샤테 전 향양대 석좌교수
- 제2주제: 글로벌화 시대 기업도시의 역할과 과제 조용준 조선대교수

주제발표
- 기업도시 당면과제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김홍규 연세대교수
- 기업도시 수변공간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김천중 용인대교수
- 기업도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 이태호 한국개발연구원 이사
- F1 경기 등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 1부 좌장: 고석규 목포대총장
- 2부 좌장: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 1부: 박대원 광운대교수, 강신겸 전남대교수, 이종화 목포대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 2부: 오병호 KDI교수, 강충효 JDC부장, 정병기 F1조직위원회 팀장, 임용욱 한국관광공사 팀장

문의 | 광주일보 기획사업국 062-220-0674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관광공사 **광주일보**